

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 운젠의 기독교인

운젠은 신도와 불교의 신앙적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농민, 무사, 심지어 영주까지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지의 땅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온 포르투갈 무역상에 의해 1549년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의 종교와 문화는 규슈 및 기타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590년대까지 나가사키는 '기리시탄'(당시의 기독교인을 가리킴)의 거점이었고, 수 곳의 교회와 기독교 책을 제작하는 인쇄소가 생겨났습니다.

운젠에서는 기독교인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1567년-1612년)가 수세기 동안 계속된 종교적 전통을 탄압하기 위해 신도의 신사와 불교 사원을 파괴하라고 명했고,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많은 불상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지금도 운젠 곳곳에서는 머리 없는 불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87년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년-1598년)는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인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일본을 식민지화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최초의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26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1637년-1638년)까지 종교적 격변이 계속되면서 수천 명이 살해되었는데, 그들은 그 첫 순교자입니다.